

신체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녀 중고등학생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

김 경 화(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)

본 연구의 목적은 자신의 신체적 모습에 대해 갖고 있는 심상인 신체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녀 중고등학생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소외감 지각에 관련된 변인을 규명하는데 있다. 대구 경북 지역 내 602명의 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
소외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Seeman(1972 & 1975)의 소외개념을 사용하여 강완숙(2000)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. 소외감 척도는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,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졌다.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와 Olson(1982)이 제작한 부모-자녀간 의사소통척도(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) 중 청소년용 설문지(Adolescent Form)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.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는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0문항이다.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Mendelson과 White(1982)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조지숙(1992)의 도구를 기초로 작성하였다. 신체상 척도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외모신체상(6문항)과 자신의 신체 건강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건강신체상(3문항)으로 구성되었으며, 총 9문항이다. 자료분석은 SPSS 18.0을 사용하였으며, 빈도와 백분율, Cronbach's α 계수, t-검증, 일원변량분석, Pearson 상관관계,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

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.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(stepwise regression)을 실시한 결과, 남학생의 경우,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으로 제시되었으며, 그 다음으로 학년, 어머니와의 의사소통, 건강신체상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아버지와의 의사소통, 학년, 어머니와의 의사소통, 건강신체상은 남학생의 소외감을 31.6%($R^2=.316$) 설명하였다. 여학생의 경우,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그 다음 어머니와의 의사소통, 학년, 외모신체상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. 아버지와의 의사소통, 어머니와의 의사소통, 학년, 외모신체상은 28.3%($R^2=.283$)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본 연구결과 남녀 청소년에 있어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소외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. 특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 소외감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어,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었다.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더 많은 소외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지상주의의 경향이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. 청소년들이 외모지향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,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외모관과 신체관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